

사회적 공인을 얻어 사전에 오르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2. 합성어

3.2.2.1. 합성어와 구

합성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단어 형성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합성어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단어+단어’인데, 이때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단어로 쓰이지 않는 비자립적 어근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자립적 어근+단어’, ‘단어+비자립적 어근’, ‘비자립적 어근+비자립적 어근’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단어+단어’ 결합의 합성어는 구와의 구별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형식의 경우 파생어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이 중 합성어와 구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구성 요소 사이에 ‘서’와 같은 요소를 넣어 보는 것이다.

(9) 가. 나는 배를 깎아 먹었다. / 나는 배를 깎아서 먹었다.

나. 그는 모든 점에서 뛰어나다. / 그는 모든 점에서 *뛰어서 나다.

(9가)의 ‘깎아 먹다’는 구이므로 구성 요소 사이에 ‘서’를 넣은 ‘깎아서 먹다’가 가능하지만, (9나)의 ‘뛰어나다’는 합성어이므로 구성 요소 사이에 ‘서’를 넣은 ‘뛰어서 나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구는 형식인 소리와 내용인 의미의 연결이 선조적(線條的)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합성어와 구별하는 것이다.

(10) 건너뛰다, 깨물다, 떠오르다, 알아듣다, 캐묻다

이 단어들은 소리와 의미의 순서가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건너뛰다’의 의미는 ‘건너서 뛰다’가 아니라 ‘뛰어서 건너다’인 것이다. 구는 당연히 소리와 의미가 선조적이고 합성어도 선조적으로 연결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합

¹⁹ 합성성의 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는 언어 표현 전체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의미와 부분들이 결합하는 통사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를 구와 합성어에 적용하면 전체 구성체의 의미가 각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으로 설명되는지 여부로 이 원리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구는 일반적으로 이 원리를 잘 지키지만 합성어는 그렇지 않다.

성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의 예들처럼 순서가 어긋날 경우 구가 아니라 합성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합성어는 구성 요소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구와 달리 합성어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적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¹⁹ 모어 화자라면 대체로 의미를 기준으로 합성어인지 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많은 경우 그 판단이 옳다. 그렇지만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11) 가. 휴대폰 값이 많이 올랐다.

나. 요즘은 책값도 꽤 비싸다.

다. 떡을 사고 떡값을 내었다.

라. 올 추석에는 보너스로 떡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11라)의 ‘떡값’은 구성 요소인 ‘떡’과 ‘값’의 의미의 결합과는 다른 별도의 의미로 파악되므로 합성어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11가~다)는 전체 구성의 의미가 대체로는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구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사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11가)만 구이고 (11나, 다)는 (11라)와 함께 합성어이다. 이는 사전을 기준으로 한 합성어 여부 판단에는 의미뿐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사용 빈도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고 14 합성어 여부 판단과 의미

합성어인지 구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구성 요소의 의미와 달라졌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구성 요소의 의미와 달라져 제3의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합성어인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발이 넓다’, ‘미역국을 먹다’와 같은 관용구는 합성어가 아니면서도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하면 합성어와 구의 구별에는 의미를 제외하고도 구성 요소들의 길이 등 다양한 특성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사전에 표제어로 오르지 못하며 ‘휴대폰 값’